

2004 지방재정 세미나

축 사

김 주 현
(행정자치부 차관)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3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지방재정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3대 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축하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재은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기안 이사장님,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지방의회 의원님, 학회 회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참여정부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과거의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과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참여형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간 창조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네트워크형 균형발전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발전 차원을 넘어서 지방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경쟁단위로 키우고자 하는 국정운영체제의 개편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가 WTO 체제하의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경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분권 후보완』, 『보충성』, 『포괄성』의 3대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일부 불건전한 재정운용 사례를 들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재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거나, 심지어 중앙집권과 집중운영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재정분권에 중점을 두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오히려 국정운영의 효율성이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치행정 역량의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될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이양에 맞추어 국가재원 중 상당 규모를 지방으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해 온 결과 현행의 국고보조사업 중 40% 가량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모의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였던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 소지 논란이 있던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은 폐지하되 자치단체에서 국가재정운영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승인도 종전의 개별승인제는 폐지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연도별 한도액을 설정하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민단체, 각계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예산공청회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예산시스템을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개편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를 외부전문가가 평가하여 공개하는 지방재정평가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분권 없이 발전 없고, 혁신 없이 분권도 없다’라는 일념으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밑 그림을 그렸고 지금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그동안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되고 토론되는 내용 하나하나가 재정분권과제의 시행과정에서 소중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새 14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재정세미나가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는 한편,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께서 목포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면서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8일

行政自治部次官 金 住 炫